

# 당서초등학교 2-3 남진연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아침엔 흐리고 낮은  
맑음

제목 : 남산 한옥마을

일요일 아침 식구들과 남산 한옥마을에 가기로 했다. 엄마는 아침 7  
시부터 김밥을 싸셨다. 차 안에서 동생 울음 소리에 시끄러웠  
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남산 한옥마을 도착!

입구에서 열광 내미고 사진을 찍었다. 우리 식구들은 벤치에 앉았다.

거기에서 엄마가 과자를 주셨다. 나는 과자를 발로 자게 부셨다.

그랬더니 비둘기와 참새가 와서 먹었다.

벤치 앞에 폭포가 있었다 폭포 속에 금붕어와

다른 물고기들이 사이 좁게 살고 있

었다. 다람쥐도 있을 것 같았는데

없었다. 꽃길에 민들레씨가 있었다.

동생은 눈이 어찌나 좋연지 민들레

꽃을 나보다 더 많이 찾았다 외국

사람도 있었다. 한옥을 보니 한옥사람들

이 있는 것 같았다 여름에는 시원하

고 겨울에는 추울 것 같다.